

시인의 마을



퇴근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짧게 호흡하는 순간입니다

우연히 눈에 담은 긴기아남** 향기에 취해 붙어집니다

마스크에 잠긴 얼굴이 속삭이는 봄바람처럼 부끄럽습니다

퇴근했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에 멍침함도 잠

시, 구부렸던 몸을 일으킵니다

느린 걸음 거북이가 된 양, 가까이 더 다가갑니다

가다가 가다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산수유, 한 모금에도 따듯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달콤한 당신의 향기에 취해야만 하는 저녁입니다

- 박여범 시인, '퇴근했습니다' 전문

**긴기아남 - 원산지는 오세아니아 (호주), 학명은 *Den drobium Kingianum*, 난초과의 상록다년초. 석곡과 매우 비슷하다. 크지 않은 꽃이 피며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다.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생장이 정지한다. 꽃은 분홍색과 하얀색이 있다

시시를 담다

안방 베란다에서 추위와 싸운 긴기아남 화분을 따스한 거실로 옮겨 주었다. 그 화분에 꽃망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2일 전이다. 작년 기억은 그리 좋지 않다. 올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꽃은 보았지만 작고 향기도 없이 짧은 시간 여행하고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더 기대하지도 않았다.

거실로 들어서며 짧게 호흡하는 순간이다. 이 시는 우연히 눈에 담은 긴기아남 향기에 취해 붙어진다

마스크에 잠긴 얼굴이 속삭이는 봄바람처럼 부끄럽다. 반전이다. 소복한 꽃송이가 가슴을 살레게 한다. 향도 진하다. 머리가 아플 정도다. 심장함을 출발점이 돼버린 꽃 잔치에 직장생활의 피로가 정화된다. 이런 것이 사는 재미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하는, 아니,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박여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새 정권과 전북의 도약

새로운 정권 탄생을 계기로 전북의 도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 발전을 약속하는 많은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과연 그 공약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과거 정부 때도 말뿐인 공약이 난무했을 뿐이다. 전라도(全羅道)는 지난 2018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다. 당시 전북은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전라도(全羅道)'라는 이름이 등장한지 1천년이 넘었다. 1936년 교리에 의해 후백제가 멸망하고 전라도 지역은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 초기에 12목이 설치되면서 전라도 지역에는 전주목, 나주목, 승주목(순천)이 설치되었다. 995년에 성종은 전라북도 일대를 강남도, 전라남도 일대를 해양도로 정했다.

1018년에는 현종이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주도를 설치하여 전라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했다. 조선시대에도 전라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조 때 전라도, 광남도 등으로 개칭했다가 되돌았다. 1728년 조선 영조에 의해 전라도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1737년에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다.

그 뒤 1896년, 13제도로 다시 바뀌면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었다.

조선 말 대한제국 초기 고종이 전국을 13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리되었다.

공약(公約)이 더 이상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너무 적게 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북 발전에 소홀히 해서 절대 안 될 것이다.

전북도는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먼저 부정적인 패배의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하다.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있기를 바란다.

학벌주의의 폐해

출신 학교 위주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벌주의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범이다. 전공과 업무와 연결되는 학구의 실적을 따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치여 있는 것은 학벌주의 때문이다.

요즘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부터 대학 입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자녀를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학원 과외를 부추기고, 너도나도 덩달아 과외 시키지 않으면 뒤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비싸더라도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가이어 명문대에 넣고 싶다. 그래서 강남으로 몰리고, 과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간판과 경쟁은 자유경제사회에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는다는 점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길러질 수 없다. 학벌주의는 특기와 적성을 무

시하고 오로지 학벌만을 추구하는 빛나간 교육열을 확대 재생산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학벌주의는 대학의 서열을 강요한다.

서열이 깨진 대학은, 중등교육을 전인 교육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킨다. 이미 오래 전에 학생은 전인 성장의 꿈을 접었다.

입시를 지상 목표로 하는 점수 획득 기계로 전락했다. 능력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 가능하다.

명문대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벌주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 경제작 상 위계층과 하위계층은 자녀들의 진학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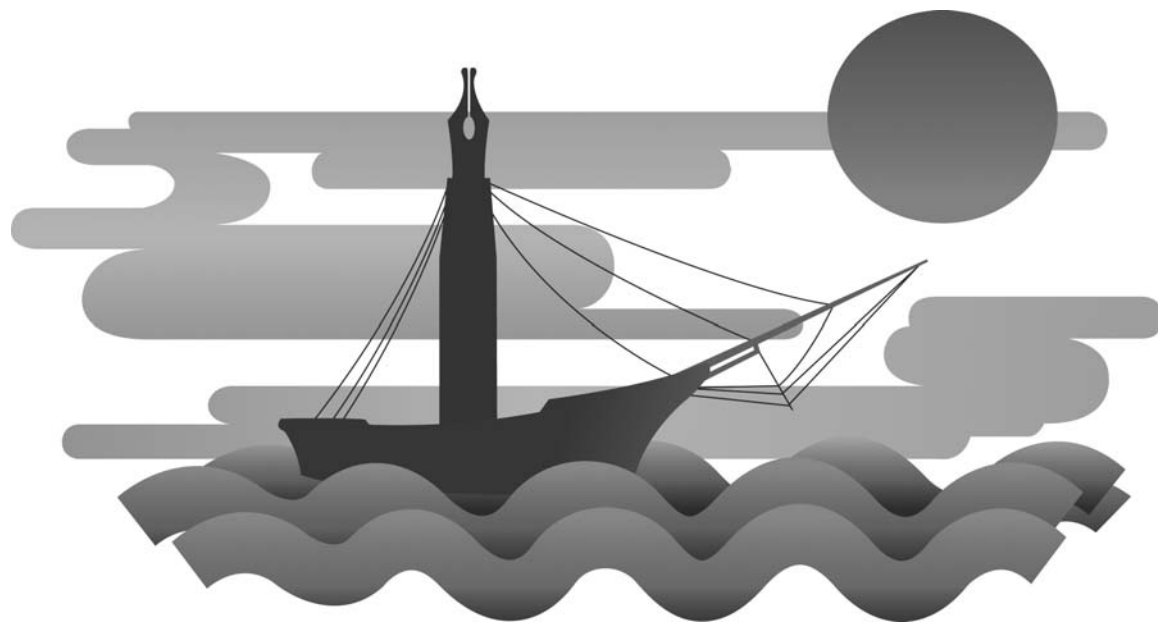
학벌주의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병폐라는 지적이 많다. 학벌주의는 신라의 골품제도가 성골과 진골을 따지는 것과 같다. 학벌주의 청산이냐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